

# 아동복지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

김연자\*, 박현승\*\*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A Study of After School Care Services in the Child Welfare System

Yeon Ja Kim\*, Hyun-Seung Park\*\*

Master's Course, Social Welfare Sungsan Hyo University\*, Professor, Seoul Digit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아동 복지제도, 아동 돌봄, 방과 후 돌봄서비스, 통합돌봄, 돌봄 공백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child care gaps has arisen due to the expansion of women's entry into the workforce and the increase in working couples, and the care cliff phenomenon after children enter elementary school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causes of women's career disconnection and low birth rates, and child care services have been initiated to solve care problems and balance work and family. The importance of childcare services to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hildren has been highlighted by the restrictions on school attendance and the absence of caregiver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government has been making policy efforts to reduce the gap in child care, but problems with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child care system have arisen due to unstable target selection and delivery systems by ministries and projects in the implementation of child care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hild care services implemented by each ministry to reduce the blind spots of after-school care services in the community and prepare efficient operation plans for various delivery systems, and seeks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care services.

**Key words** Child welfare system, Child care, After-school care service

Received 02 Jan 2024, Revised 11 Jan 2024

Accepted 16 Jan 2024

Corresponding Author: Hyun-Seung Park  
(Seoul Digital University)

Email: geumbat1004@daum.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돌봄 절벽 현상이 저출산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는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황준성 외, 2019)[1].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가 제한되면서 아동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형제 둘만 집에 머물다가 큰 화재를 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돌봄서비스가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최은지, 2020)[2].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45.5%가량의 아동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평일 방과 후에 혼자 있는 '나홀로 아동'은 6~17세 총인구 582만 명 중 116만 명(2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홍나미 외, 2019)[3].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도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시행되고 있다(김주리 외, 2021)[4].

하지만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기존의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시간의 사각지대(예, 저녁 5~8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쏟아내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 부처별·사업별로 대상 선정과 전달체계의 운영 방식도 상이하여 제도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강지원 외, 2020)[5].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된 전달체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방과 후 돌봄서비스

### 2.1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개요

전통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뜻한다. 그러나, 2017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마을 돌봄의 전달체제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겨났으며, 학교 돌봄 전달체제로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확대되었다(강지원 외, 2020)[5].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3개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4개 사업(초등돌봄교실(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포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이 시행되고 있으며, 돌봄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은 충분하지 않고, 세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 선정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제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강지원 외, 2020)[5].

이처럼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에 서로 다른 부처와 공급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및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제도가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중복 이용을 허용하며 상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중복 이용과 돌봄 공백의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주리 외, 2021)[4].

### 2.2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소관 사업으로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 교실 등)이 갖춰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말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8)[6].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방과 후 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었으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맞벌이·저소득층·한 부모·다자녀 등 가정의 아동이다(강지원 외, 2020)[5].

2019년 전국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266개 초등학교의 97.6%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표 2-1〉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개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소관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적 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제2015-74호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9조	아동복지법 제52조, 제53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2
시행시기	2004	2004	2017	2005
지원대상	초1~6학년	만 18세 미만	만 12세 미만	초4~중3학년
지원 내용	보호, 교육 및 일부 급·간식 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시간제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 및 생활지원(급식지원 포함)
담당 인력	돌봄전담사	생활복지사(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지역 인적자원	청소년지도사
운영형태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맞벌이가정 중심 상시·일시 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지원형태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5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무상
운영규모 (2019)	12,984실(초등 24만 명)	4,148개소 총11만 명(초등 8만 명)	163개소	349개소
이용아동 (2019)	290천명	110천명	2878명	9천명
예산(2020)	3,814억 원(보통교부세) 210억 원(국고보조)	1,830억 원(국비48%, 지방비52%)	262억 원(국비50%, 지방비50%)	251억 원(국비48%, 지방비52%)

자료: 방과후돌봄서비스 개요, 강지원 외(2020) 재인용.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오후 돌봄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의 95.5%, 저녁 돌봄, 방과 후 연계형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각각 10.5%, 28.4%로 나타났으며(김은정 외, 2019), 총 290,358명의 아동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원 외, 2020)[5].

‘오후 돌봄’은 오후 돌봄 전용·겸용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급식 제공 없이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김은정 외, 2019)[7]. 오후 돌봄은 돌봄전담사, 돌봄 봉사 인력 등의 지원·관리하에 숙제, 일기 쓰기, 독서, 글쓰기 등 다양한 개인 활동과 외부 강사 및 교원에 의해 운영되는 예체능,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한다(김은정 외, 2019)[7].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 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 전용·겸용 교실에서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학생 입·퇴실 및 안전 관리와 같은 학생 관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에는 과제, 독서 등 개별 활동 수행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여 틈새 프로그램(예: 전통 놀이) 운영도 가능하다(김은정 외, 2019)[7].

‘저녁 돌봄’은 오후 돌봄교실 및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 전용·겸용 교실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교육 방송 시청 등의 개인 활동과 학교 여건에 따라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한다(김은정 외, 2019)[7].

〈표 2-2〉 다양한 형태의 초등돌봄교실 참여 대상

구분	참여 대상	
초등돌봄교실	오후 돌봄교실	1~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저녁 돌봄교실	오후 돌봄교실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자료: 방과후 학교포털시스템 홈페이지(2020). 초등돌봄교실(강지원 외, 2020) 재인용.

### 2.3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

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은정 외 2019)[7].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되어 오던 공부방을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양성화한 것으로, 빈곤 아동에게 방과 후 학습지원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정익중 외, 2021)[8]. 지역아동센터 수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9년 12월말 기준 4,264개소로 증가했고, 이용 아동 역시 23,347명(2004년)에서 110,321명(2019년)으로 증가했다(강지원 외, 2020)[5].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하여 하루에 8시간 이상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19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12시부터 17시까지가 필수 운영시간으로 한다(강지원 외, 2020)[5].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서비스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회회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이 이용 대상 아동을 발굴·추천하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김은정 외, 2019)[7].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성되며 돌봄 취약 아동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가구 특성 기준, 나이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을 뜻하며(김은정 외, 2019)[7], 돌봄 취약 아동 선정 관련 소득 기준은 <표 2-3>과 같다.

<표 2-3> 돌봄 취약 아동 선정 소득 기준

구분	내용
기준1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기준2 (증명서 대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또는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아동이 등록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조손 가족인 경우에 한함)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김은정 외(2019) 재구성.

돌봄 취약 아동 선정 관련 가구 특성 기준은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의료급여 수

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조손 가족 등 특정 가구에 속한 아동인 경우이며, 나이 기준의 경우, 만 18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주된 대상이 된다(김은정 외, 2019)[7]. 또한, 돌봄 취약 아동에 포함되는 ‘돌봄 특례’는 일반아동에 해당하나 보호자의 질병이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한 경우 등 특정 가구에 한해 시·군·구청장이 돌봄 취약 아동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일반아동’은 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김은정 외, 2019)[7].

### 2.4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강지원 외, 2020)[5].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초등학교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용 자격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강지원 외, 2020)[5].

다함께돌봄센터는 다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병행 이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이 가능하다(김주리 외, 2021).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기 전 틈새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김주리 외, 2021)[4].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은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단기 방학 포함)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를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두고 있으며,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김은정 외, 2019)[7]. 종일 돌봄은 매일 센터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시간제 돌봄은 정기적인 단시간 혹은 요일별 이용에 해당한다(김은정 외, 2019)[7].

돌봄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 학습 활동(특기 적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본 프로그램은 출결 및 급·간식에 해당하고, 공통 프로그램은 숙제 지도

및 신체 활동 등, 학습 활동(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자율 참여 형태의 프로그램이다(김은정 외, 2019)[7].

〈표 2-4〉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구분	활동분야	활동 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기본 프로그램	출결 확인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 확인 입출입이 잦은 학생에 대한 출결 유의	돌봄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 인력 지원
	아동 지원	일상생활 교육(위생 정결 교육, 화재 및 안전 교육) 아동 및 학부모 상담	
	급·간식 지원	급식 지원(방학) 간식 지원	
공동 프로그램	숙제 지도	숙제 지도(알림장 확인, 숙제 확인)	돌봄선생님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자원봉사 인력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 퇴직 교사, 학부모 재능 기부 등으로 운영 가능
	독서 지도	독서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독서 활동 프로그램 운영	
	신체 활동	신체 놀이(줄넘기, 자전거, 배드민턴, 축구 등)또래 놀이(놀이터, 민속놀이, 인형극 등)	
	휴식	자유 활동, 휴식 취하	
학습 활동 (특별 활동)	기초 외국어	기초 외국어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외국어 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과 돌봄 선생님 지원(단, 특별 활동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추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해야 함)
	예체능	예체능 활동지도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과학	과학 지도(드론, 로봇, 과학 상자 등)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 활동	문화 예술 체험(영화, 난타, 박물관, 시장 등)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요리, 화채 등)	

출처: 김은정 외(2019) 재구성.

한편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수납 한도액이며, 수납 한도 내에서 지역 여건 및 제 공 서비스 등에 따라 수납액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며, 이용료는 프로그램 활동비,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김은정 외, 2019)[7].

## 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강지원 외, 2020)[5].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을 우선순위 지원 대상과 기타 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주리 외, 2021)[4]. 지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9% 미만),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가정·2차녀 이상 가정·맛벌이 가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이며 기타 지원 대상은 학교장(교장 및 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 및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서와 추천 내용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이다(강지원 외, 2020)[5].

운영시간은 기본적으로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대에 지역사회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일 4시 수, 주 5~6일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 여건에 따라 연간 241일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김은정 외, 2019)[7]. 운영 시수는 주중 활동과 주말 활동으로 구분되며 주중 활동은 1주 20시 수 이상 되어야 하며 1시 수는 휴식을 포함하여 60분, 급식은 30분~1시간 내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주말 활동은 월 1회

〈표 2-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구분	편성 시수	
주중 (20시수 이상)	프로그램은 주중 운영 시수 내 자율 편성하되, 월 9시수 범위 내 필수 편성 운영 민주 시민 역량·진로 개발 역량·제4차 산업 혁명 대비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창의 융합 역량 강화는 월 4시수 필수 편성) * 단, 민주 시민 역량, 진로 개발 역량, 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월 9시수 필수 편성은 주말 체험 활동, 주말 자기 개발 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나 전체 시수(월 9시수)를 주말 프로그램으로 편성 불가 자기 개발 활동 주중 2시수 이상(의무) 생활 지원 과정 5시수 이상(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주말 (도)	월 1회 (주말 체험)	주말 체험 활동 4시수 민주 시민 역량·진로 개발 역량·창의 융합형 문제 해결 역량 강화 편성 가능 생활 지원 과정 1시수(급식, 상담, 건강 관리 등)
	월 1회 (자기 개발)	자기 개발 활동 과정 2시수 이상(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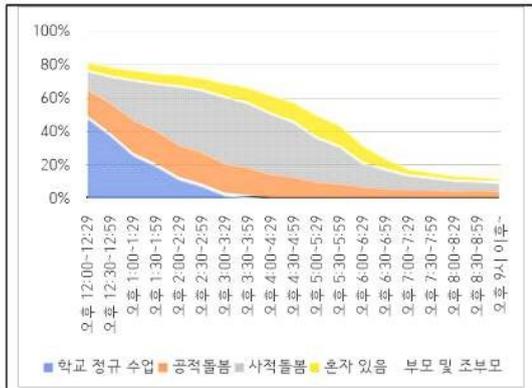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 김은정 외(2019) 재구성.

5시 수 이상 되어야 한다(김은정 외, 2019)[7].

### 3.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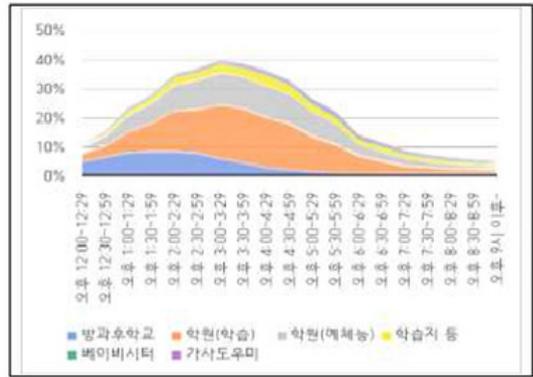
#### 3.1 방과 후 시간대별 돌봄 이용 형태

초등학생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현황을 [그림 3-1]을 통해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학교 정규수업은 12시 이후부터 15시 30분 사이에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적 돌봄은 16시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강지원 외, 2020)[5]. 공적 돌봄 중에서 학교 돌봄은 주로 17시까지 제공되고 있지만, 학원 등을 이용하는 사적 돌봄은 14시부터 18시까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공적 돌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시간까지 사적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강지원 외, 2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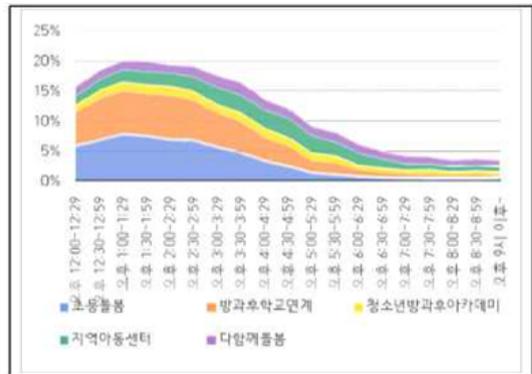


[그림 3-1] 시간대별 방과후 시간 이용 현황: 초등학생 전체

[그림 3-2]와 [그림 3-3]을 통해 공적 돌봄과 사적 돌봄을 각각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 돌봄은 대체로 오후 1시 이후에 집중되며, 16시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등 학교 돌봄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강지원 외, 2020)[5]. 다음으로, 사적 돌봄은 방과 후 학교와 학원의 이용이 높게 나타났고, 사적 돌봄 중 방과 후 학교는 돌봄 시간이 가장 빨리 종료되며, 학원은 주로 18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원 외, 2020)[5].



[그림 3-2] 사적 돌봄 이용시간대



[그림 3-3] 공적 돌봄 이용시간대

#### 3.2 돌봄 이용 비용

방과 후에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면 돌봄 이용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돌봄이 제공되지 못한다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에는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강지원 외, 2020)[5]. <표 3-6>에 따르면, 가정 내에서 가사도우미가 자녀 돌봄까지 제공하는 경우 평균 53.2만 원으로 가장 높고, 학원(학습+예체능) 이용 시 평균 47.1만 원, 민간 베이비시터 이용 시 35.2만 원, 방과후학교 23.6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22.4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강지원 외, 2020)[5]. 이에 비해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은 20만 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6〉 돌봄방법별 이용비용 평균

구분	단위: 만원/월
초등돌봄교실	12.4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14.7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17.5
지역아동센터	14.2
다함께돌봄센터	17.3
방과후학교	23.6
아이돌봄서비스	22.4
학원(학습+예체능)	47.1
민간 베이비시터	35.2
가사도우미	53.2

자료: 2020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실태 및 수요조사. 강지원 외(2020).

### 3.3 방과 후 돌봄 미이용 사유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미이용 사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3-7>과 같다. 자발성을 기준으로 미이용 사유를 살펴보면,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가 있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27.9%로 가장 높고, 서비스 질과 프로그램에 따른 선택이 16.2%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자녀가 선호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12.6%였다(강지원 외, 2020)[5]. 이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거나 서비스 질과 프로그램 등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14.5%)와 ‘이용 신청했으나 탈락’(5.4%) 등 대상 선정 기준으로 인한 탈락이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10.7%)와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5.5%)는 1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하고자 하는

〈표 3-7〉 공적 방과 후 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구분		%
비자발적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10.7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14.5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5.4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5.5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3.7
자발적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9.2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7.0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12.6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 친척)가 있어서	27.9
기타		3.4

의향은 있으나 대상 선정 기준 및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3-8> 공적 돌봄 미이용 사유별 돌봄에서 탈락한 사유를 살펴보면, 공적 돌봄 형태별로 사유가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했으나 탈락했다는 응답이 많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 시간대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의 대상 선정 기준은 학년과 맞벌이 여부이며, 모집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무작위 추첨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임지선, 2020)[9]. 이에 따라 고학년, 비 맞벌이 등은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 신청이 가능한 맞벌이, 저학년에서도 정원 초과에 따른 탈락이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강지원 외, 2020)[5].

〈표 3-8〉 미이용 사유별 탈락한 돌봄 유형

구분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여서
초등돌봄교실	38.3	56.3	43.1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33.5	27.4	38.9
지역아동센터	12.2	9.4	8.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3	4.6	8.7
다함께돌봄센터	3.4	4.6	8.7
기타	2.2	1.6	-

자료: 2020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실태 및 수요조사. 강지원 외(2020).

### 3.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의견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사업별로 소관 부처와 대상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으나 주요 프로그램은 안전한 보호와 기초 학습지원, 문화 활동, 정서 지원 등으로 유사하다(강지원 외, 2020)[5]. ‘2020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영역은, ‘안전한 보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부모들이 방과 후 돌봄에서 기대하는 것이 학습지원보다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강지원 외, 2020)[5].

다음 <표3-9>는 사교육에서 공적 돌봄으로의 전환 의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만약 대상자 선전 기준 등에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공적 돌봄만 이용하겠다는 의사는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연계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공급 확대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강지원 외, 2020)[5]. 특히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저소득층 중심의 대상 선정 기준을 일반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므로, 접근성을 고려한 공급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 기존 시설의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할 것인가 등을 고려하여 공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강지원 외, 2020)[5]. 그러나 학부모들은 공적 돌봄의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43.1%)하겠다는 응답과 학원과 함께 이용(39.2%)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향후 공적 돌봄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3-9> 사교육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 의향

구분	공적돌봄 서비스만 이용하겠다	서비스 수준이 개선된다면 이용하겠다	학원과 함께 이용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전체	6.8	43.1	39.2	10.9	
학년별	1	13.5	42.6	39.1	4.8
	2	8.3	46.5	38.2	7.1
	3	5.2	43.8	40.6	10.4
	4	5.8	45.2	36.2	12.8
	5	5.7	41.8	40.5	12.0
	6	5.2	41.0	39.8	13.9

자료: 2020년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실태 및 수요조사. 강지원 외(2020).

#### 4. 결론

지금까지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2020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를 통한 돌봄 수요층의 욕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되면서 대상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선호에 차이와 함께 일부 시설은 사

회적 낙인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 돌봄에 있어서 가장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의 욕구를 반영하여 노동권과 부모권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존 정책과 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비 맞벌이 가구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공적 돌봄서비스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함의한다(김주리 외, 2021)[4]. 이러한 점을 통하여 향후 정부가 강화해야 할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돌봄 강화를 통한 공적 돌봄 전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적 돌봄에서 초등돌봄교실을 가장 선호하지만, 초등학교 내에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정 외, 2019)[7].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저학년 하교 시간(오후1~2시)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과 같은 서구 사회의 정규수업 시간(오후3~4시) 보다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김주리 외, 2021)[4] 구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돌봄의 수요와 안정성을 고려하여 초등학생들의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학교에서의 돌봄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7년 ‘온종일 돌봄 체제’가 구축되었지만, 부처별·사업별 대상 선정과 전달체계가 상의한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아동 돌봄을 위한 부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돌봄서비스는 부처 간 연계 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김정란, 최지훈, 2014; 이주연, 조경욱, 최지훈, 2021)되어 통합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10, 11].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김은정 외, 2019)[7].

셋째, 돌봄 부재의 문제점을 공동체적 입장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중심의 돌봄 지원만으로 온전히 해소될 수 없는 돌봄 사각지대와 긴급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하는 ‘지역성’ 강조와 지역주민과 당사자인 부모의 ‘참여성’이 강조되는 돌봄공동체의 형성 및 강화가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였다(유혜미, 2018; 이미영 외, 2017)[12, 13].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여성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아동 돌봄 영역을 공동체적 돌봄 실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 마

련이 필요하다.

넷째, 소득 기준이나 자격 기준에 따른 선별적 돌봄서비스가 아닌 보편적 돌봄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필요성이 많다고 여겨지는 실수요자(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등)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인 공급 방식이다. 이러한 선별적인 방식은 수요자의 낙인감을 증가시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김은정 외, 2019)[7]. 스웨덴에서는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모두에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용 비용은 소득 상한선까지는 가구의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자녀 수와 이용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김주리 외, 2021)[4].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모든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및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정부가 이용료를 지원하고 소득계층이 높은 아동은 비례적으로 부모 부담분을 늘리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김주리 외, 2021)[4]. 이러한 보편적인 돌봄서비스로의 전환은 돌봄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황준성·이희현(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개선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6(4), pp107-130.
- [2] 최은지(2020.10.15.). 라면 화재 형제는 돌봄 공백 문제. *교육복지사* 늘려야. 연합뉴스.
- [3] 홍나미·정익중(2019).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론. *사회복지연구*, 50(3), pp5-31.
- [4] 김주리·최혜진·강지원(2021).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1(2), pp178-197.
- [5] 강지원·최혜진·임완섭·황안나·안영·조동훈·김우성(202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정적 지출 관리 방안 연구-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51.
- [6] 한국교육개발원(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별책 초등돌봄교실 운영 가이드 라인.
- [7]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희(2019). 초등아동 대상

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 분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45.

- [8] 정익중·오정수(2021). *아동복지론*. 학지사.
- [9] 임지선(2020). 돌봄 추첨 뒤 위경련이 왔다. *한겨레*, 제 1300호.
- [10] 김정란·최지훈(2014). 『광주지역 초등자녀 돌봄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광주여성재단.
- [11] 이주연·조경옥·최지훈(2021). 『전북지역 기반 아동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전북: 전북연구원.
- [12] 유혜미(2018). 저출산 분야 자녀 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13] 이미영·전희(2018). 여성 임과워먼트를 위한 여성 노동, 돌봄과 법적 관계. *입법학연구*, 15(1), 235-262.

### 김 연 자 (Yeon Ja Kim)



- 2022년 03월~현재 : 성산호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 2022년 02월 : 호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평생교육, 청소년복지, 다문화 복지
- E-Mail : whamin546@gmail.com

### 박 현 승 (Hyun Seung Park)



- 2022년 03월~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010년 05월 : 미국 Calvin Bible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D)
- 2020년 08월 :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M.S.W)
- 2023년 03월~현재 : 세한대학교 교수
- 한국복지상당경영학회 회장
- 2016년 01월~현재 : (사)대한노인복지진흥회 대표이사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상담,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 E-Mail : geumbat1004@daum.net